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김병연 | 서울대학교 교수 | kimby@snu.ac.kr

I. 서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 사회적 규범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Knack and Keefer, 1997).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 간에 경제활동을 조정(coordination)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의 경제적 성취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을 것이다.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좋은 평판(reputation)을 얻을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정보 획득에 유리하며 필요시 도움을 받기도 쉽다.

사회적 자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 시,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남한 출신 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신뢰수준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안정적인 직업 보유와 개인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본문은 김병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조병구 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한국개발연구원, 2016)의 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인의 허락을 받아 원문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였다.

II.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비교

1. 재북 시 사회적 자본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별, 남한 입국연도(2002년 이후 남한 입국자만 대상)를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설문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와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거주할 때의 사회적 자본을 묻는 설문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법 준수에 대한 의식, 그리고 시장에서 동업할 때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문 문항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 여부와 도움을 준 사람, 여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와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에 관해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귀하께서는 북한에 사실 당시, 직계 가족 외에 친척·이웃·사회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의 보기 중에서 응답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 이와 유사하게 “귀하께서는 북한에서 사실 당시,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 또는 선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다, 아니다”의 보기를 제시했다. 만약 이 두 질문에서 “그렇다”를 택했을 때 신뢰한 사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의 수를 적게 하고 본인과의 관계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직계가족 이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나 선배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의 유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¹⁾ 이 두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평균 23.9%라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 물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본의 특성상 북한에서 신뢰하거나 존경하던 사람들이 북한 전체 주민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 재북 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유무

	총계	있었음(%)	없었음(%)
직계가족 이외 믿고 신뢰하는 사람 유무	1,010	27.4	72.6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나 선배 유무	1,010	20.4	79.6
평균		23.9	76.1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표 2〉 재북 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

	명수	1순위	2순위	3순위
직계가족 이외 믿고 신뢰하는 사람 유무	2.9	친구	친척	동네지인
존경하고 따르던 상급자나 선배 유무	2.3	직장 상사 동료	학교 선배 동창	학교 스승, 선생님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표 2〉는 〈표 1〉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에게 신뢰하거나 존경한 사람의 수와 그 관계를 설문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믿고 신뢰하거나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던 경우, 그 평균적인 숫자는 각각 2.9명과 2.3명이었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친구, 친척, 동네 지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로는 직장 상사나 동료, 학교 선배나 동창,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상황에서 비롯되는 관계가 대부분이었다.

2. 남한에서의 사회적 자본: 남한주민과의 비교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설문 보기가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설문 보기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세계가치관조사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는 신뢰를 묻는 질문의 보기로 “① 완전히 신뢰한다, ② 신뢰하는 편이다, ③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 분포를 보여준다.

〈표 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분포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실태조사
매우 신뢰한다	0.3%	0.9%	3.6%
신뢰하는 편이다	13.5%	18.1%	10.9%
보통이다	범주 없음	범주 없음	32.9%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57.2%	53.4%	38.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9.03%	27.6%	14.2%
합계	100%	100%	100%
표본 수(명)	1,006	1,194	1,010

주: 세계가치관조사는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에 소개되어 있음.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2013)는 강원택(2014)의 연구를 위한 조사로서 그 결과는 강원택 외(2014)에 소개되어 있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2010~14),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2013).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도 ‘2016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는 다섯 가지 보기를 주고 질문한 반면,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는 각각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완전히 신뢰함”까지 0~100점 중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섯 가지 보기, 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 각각 90, 70, 50, 30, 10점을 부여하고 그 비중을 곱해서 다섯 가지 보기를 이용한 응답을 0~100점 사이의 점수체계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을 때의 신뢰도는 2.95로서 남한주민의 신뢰도인 3.08, 3.14에 비해 더 높다. 따라서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한 모든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는 남한주민의 신뢰도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50점을 넘는 반면, 남한주민의 경우는 어떤 기관도 50점 이상을 받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신뢰하는 기관은 정부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신뢰도 차이가 가장 큰 기관은 국회로, 그 점수의 차이가 20점에 달했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순서로 남한주민은 정부, 종교기관, 사법부, 언론, 국회를 택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정부, 사법부, 종교기관과 국회, 그리고 언론을 택했다.

〈표 4〉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	세계가치관조사	실태조사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4점 척도)	3.14	3.08	2.63(최대)~2.95(최소)
기관에 대한 신뢰도 (0~100점)	정부기관	48	-
	사법부	44	-
	국회	31	-
	종교기관	47	-
	언론기관	41	-

주: 1)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신뢰"를 1점, "신뢰하는 편"을 2점, "신뢰하지 않는 편"을 3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4점으로 하고 각각의 비중을 곱해 계산한 점수.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함.

2)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 정도를 0점(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0점(완전히 신뢰함)으로 표시한 수치.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2010~14),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2013).

자료 주: 세계가치관조사는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에 소개되어 있음.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조사(2013)는 강원택 외(2014)의 연구를 위한 조사로서, 그 결과는 강원택 외(2014)에 소개되어 있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한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남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와 도움을 받았을 경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 그리고 남한 출신 주민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설문하고 있다. 〈표 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출신 주민

(단위: 명)

북한이탈주민의 도움			남한 출신 주민의 도움		
북한이탈 주민	가족 및 친척	47	남한 출신 주민	가족 및 친척	12
	임대아파트 주민 및 동네 이웃	38		임대아파트 주민 및 동네 이웃	35
	북한 동향 출신	97		정부 관련 사람	83
	하나원 동기	59		민간단체 사람	56
	북한이탈주민 단체 사람	47		종교단체 사람	59
	종교단체 사람	21		기타	30
	기타	5			
합계	314	합계	275		

주: 1) 복수 응답을 허용하고 있음.

2)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적 없다는 173명을 제외한 837명 중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274명으로 그 비중이 33%이며, 남한 출신 주민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251명으로 그 비중은 30%이다.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표 5〉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837명 중 각각 274명과 251명이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출신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즉, 도움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3%와 30%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한에서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²⁾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순위는 동향 출신, 하나원 동기, 북한이탈주민 단체 사람, 그리고 가족 및 친척 등으로 나타났다. 남한 출신 주민 중에서는 정부 관련 사람, 종교단체, 민간단체 사람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연결망 중 남한에서의 적응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남한 출신 민간 주민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 남한 출신 주민 중 종교단체 사람, 민간단체 사람 그리고 임대아파트 주민 및 동네 지인의 수는 150명으로 전체 도움을 준 수 가운데 25%가량에 그쳤다.

3. 남한에서의 사회적 자본: 남한주민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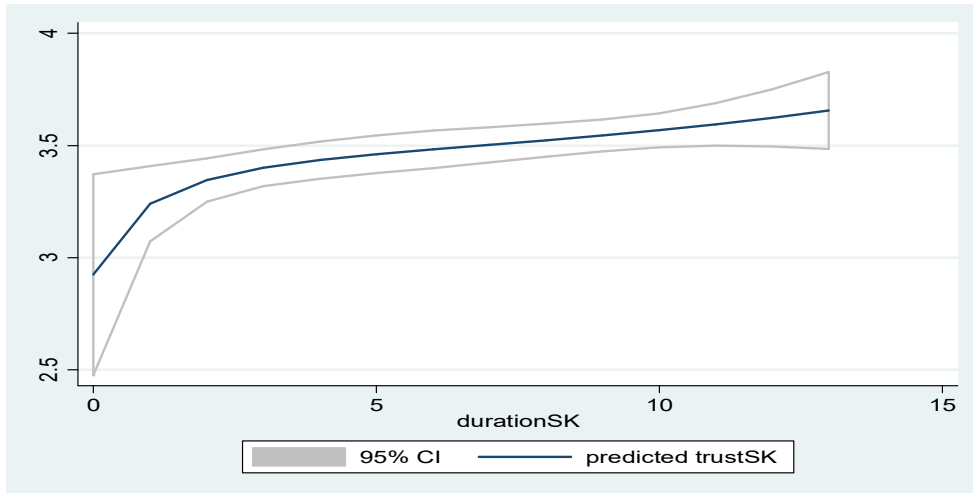
앞의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남한주민과 비교하여 모두 높은 수준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독일의 경우, 즉 동독주민의 신뢰가 서독주민에 비해 낮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충되는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Heineck and Sussmuth, 2013). 그러나 동독주민들의 대부분은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에 이주한 경험이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했다는 차이점이 북한이탈주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을 버리고 남한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한을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 즉 신뢰수준과 사회적 관계망은 어떻게 변할까. [그림 1]은 남한에서의 정착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남한에 정착한 지 0~3년 동안에는 신뢰도의 하락 속도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다가 3년 이후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사람들의 신뢰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남한에 정착한 지 가장 오랜 기간이 지난 사람들, 즉 2003년에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사람들의 신뢰도는 3.7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는 남한주민의 일반적인 신뢰도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는 북한이탈

2) 물론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도움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3) 〈표 4〉에 제시된 방식으로 5점 척도의 신뢰도 분포를 4점 척도로 바꾼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가 3.06으로, 세계가치관조사에 나타난 남한주민의 신뢰도 3.08보다 여전히 높다.

[그림 1]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주: 추정은 fractional polynomial 방법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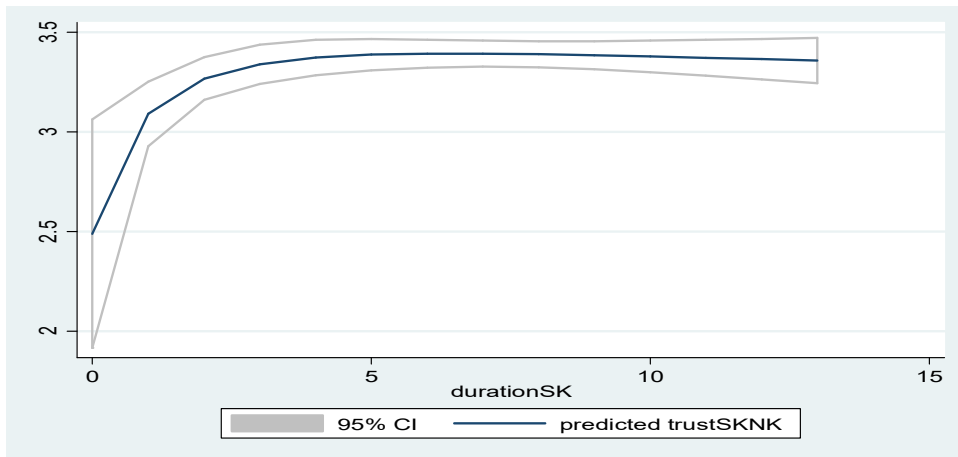
주민이 남한주민 수준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로 수렴하는 데는 1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2]는 처음 만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신뢰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추세도 [그림 1]과 같이 정착 초기에는 낮다가 그 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여주는 신뢰도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정착 초기 2년 내에는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3년 뒤에는 하락이나 상승의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수준을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남한 전체에서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 수가 적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정착기간에 따라 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 초기 1년까지는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신뢰구간도 매우 넓어 응답자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처럼 제도에 대한 신뢰는 초기 학습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착 2년째부터는 신뢰도의 하락 추세가 시간에 따라 특별한 변화 없이 전 기간에 비해 비교적 일정하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13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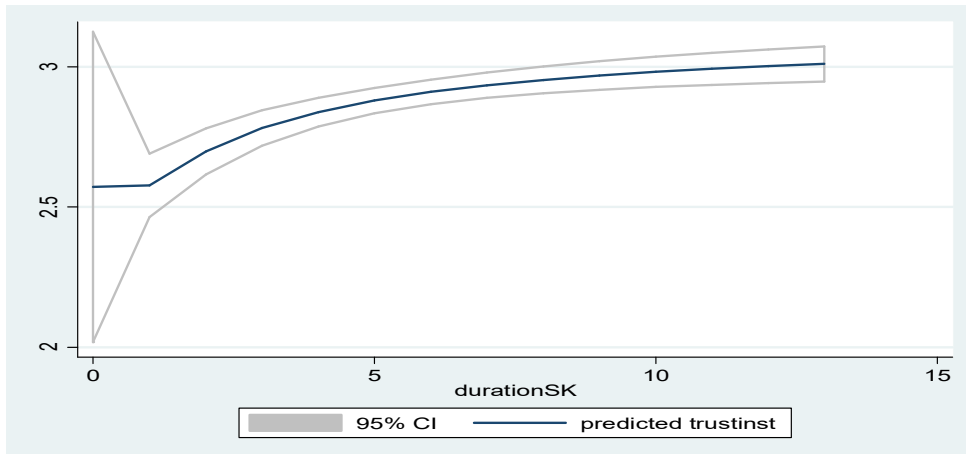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나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5점 척도의 3이며 <표 4>와 같이 남한주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임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처음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



주: 추정은 fractional polynomial 방법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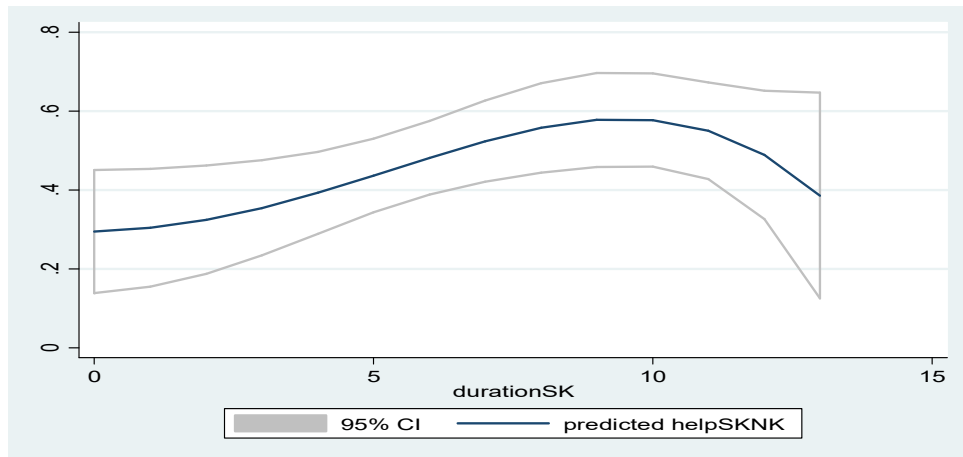
[그림 3]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제도에 대한 신뢰



주: 추정은 fractional polynomial 방법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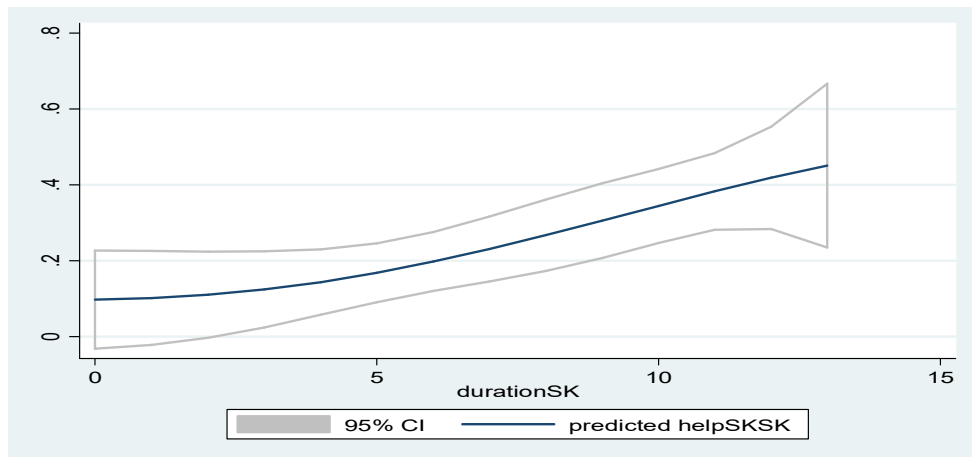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정착기간에 따라 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1~10년 차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10년이 지나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은 정착한 지 13년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은 정착 초기 0.1에서 정착 10년이 지나면 0.4에 이르게 된다. 이는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그림 4]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망의 변화



주: 추정은 fractional polynomial 방법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그림 5] 남한 정착기간에 따른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의 변화



주: 추정은 fractional polynomial 방법을 이용하였음.
자료: 2016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수 있는 사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상대, 직장을 부탁할 수 있는 상대를 평균하여 정착 초기는 0.1명 정도의 남한 출신 상대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나면 0.4명 정도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1년에 평균 0.03명의 관계망이 증가하지만 이는 크지 않은 수치로 평가된다. 더욱이 10년이 지난 후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의 증가폭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망의 감소폭에 비해 작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은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남한 정주기간은 6.8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연결망이 남한 출신 주민과의 연결망보다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이 연구는 발견하고 있다. 정착기간이 늘어날수록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가폭은 매우 완만하다. 더욱이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망은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하지만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의 증가가 이를 보충하기는 역부족이다. 그 결과 남한에 정착 후 10년이상이 지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III. 신뢰의 형성

1.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보다 자세히 종속변수를 설명한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귀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의미한다. 추정 방법으로서 낮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다섯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으므로 순서 로짓(ordered logit)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관련 변수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⁴⁾ 북한 관련 변수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법 준수 정도와 관료들이 뇌물을 받을 것에 대한 동의 여부, 공식 직업 보유와 군인, 그리고 비공식경제활동 중 장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관료들이

4) 본 요약문의 길이의 제약으로 인해 자세한 회귀분석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회귀분석 결과표는 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뇌물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공식 직장에서 일했거나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 그리고 비공식경제활동으로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공식경제활동 중 생산, 농업,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이 신뢰도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북한 관련 변수 중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변수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식 직장에서 일을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적 가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겪게 되는 가치관적 혼란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 또는 북한과 같은 억압적인 정권의 공식 직장 경험에서 습득한 것 중 하나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군 복무 경험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공식활동 중 장사 경험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장사에서 상대방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상업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한 나라에서는 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뇌물을 받을 것으로 믿는 것이 신뢰도의 하락과 연관된 이유는 타인 사이의 관계에 불공정함이 개입되어 있다는 인식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는다든 의혹이 있으면,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것은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남한 관련 변수 가운데서는 거주 기간, 물질주의 정도, 마음을 나눌 상대, 남한주민의 편견, 북한이탈주민의 도움, 그리고 상위 20% 이내의 소득 등이 유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을수록,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편견이 있다고 믿을수록 신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신의 소득이 상위 20%에 속한다는 인식은 신뢰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북한이탈주민이 많을수록 신뢰도도 증가하였다. 남한 출신 주민의 도움도 신뢰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가장 객관적인 것은 남한에서의 거주 기간이었다. 이 변수의 한계효과를 추정했을 때 한국에 입국한 직후는 신뢰도가 0.056 하락하지만 6년 차에는 0.038, 그리고 12년 차에는 0.025 하락한다. 즉, 전체적으로는 신뢰도의 하락이 완만해지면서 남한의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한 정착 이후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여전히 하락한다는 사실은 남한에서의 적응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2. 제도에 대한 신뢰의 결정요인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여섯 기관, 즉 정부, 사법부, 국회, 대기업, 언론기관, 종교기관의 신뢰도의 단순 평균을 종속변수, 그리고 앞 절에서 논의한 동일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각 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동일한 보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뜻한다. 단지 여섯 기관의 평균치가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 관련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연령의 제곱이 각각 신뢰도와 음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관련 변수 중 북한 관료들이 뇌물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의 기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을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남한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북한에서 비공식경제활동이 주된 소득원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일수록 북한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을 것이며, 이 인식이 남한 제도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남한 관련 변수는 모두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서 유의한 변수는 남한 출신주민의 도움이며, 그 효과는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한주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한 출신 주민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가 북한이탈주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는 북한 관련 변수보다 남한 관련 변수가 많다. 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형성될 수 있지만 남한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북한보다는 남한의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한의 민주주의, 기업, 종교 기관 등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는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남한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에 온 이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한 초기에는 북한과 대비하여 훨씬 양질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게 형성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착기간이 지날수록 남한 제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남한 출신 주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생긴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남한 출신 주민에 비해 더 높다. 이는 동서독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즉, 동서독에서는 동독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서독주민에 비해 낮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그 반대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가 북한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즉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남한 입국 당시 남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추이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에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서독의 경우는 동독의 낮은 신뢰수준이 통일 이후 서독의 높은 신뢰수준으로 수렴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신뢰도는 이와 반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정착 후 13년이 지나도 북한이탈주민의 신뢰수준은 남한 수준으로 완전히 수렴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한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제한적이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믿고 신뢰하거나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던 경우, 각각의 수는 2.9명과 2.3명에 불과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도 관계될 수 있지만 북한의 정치체제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 관계망에 대한 설문, 즉 몸이 아플 때에 도움을 받을 사람,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빌릴 수 있는 사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직장을 구해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질문에서 평균 57%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1.8명, 남한 출신 주민 0.9명에 불과하였으며 남한주민, 그중에서도 남한의 민간 영역과의 연결망은 제한적이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은 정착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감소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1~10년 차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10년이 지나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남한 출신 주민과의 관계망은 정착 직후부터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증가폭은 완만하다. 따라서 10년 이후에 일어나는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관계망 축소를 남한주민과의 관계망 확대가 보충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정착 이후 10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관계망의 위기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남한 정착기간이라는 남한 적응 과정에 따르는 변화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도 현저하다. 북한에서 공식 직장을 보유했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그리고 비공식활동으로서 장사를 한 사람들의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낮았다. 또한 물질주의 정도, 법 준수나 관료들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 도움 등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한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달리 북한 관련 요인보다 남한 관련 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재북 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제도를 접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남한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남한에 정착한 이후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원택 · 김병연 · 안상훈 · 이재열 · 최인철,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2014.
- Heineck, Guido and Bernd Süßmuth, “A Different Look at Lenin’s Legacy: Social Capital and Risk Taking in the Two German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1(3), 2013, pp.789~803.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997, pp.1251~1288.